

## 루터가 가르친 성령론

1.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(Martin Luther)가 가르친 신앙의 중심  $\Leftrightarrow$  하나님과 인간 ( $\rightarrow$  관계성에서 파악되는 지혜)  
“하나님과 인간을 인식하는 것은 신적인 지혜이며, 본래적인 신학이다” (1532년 시편51편2절에 대한 강의 중)  
↳ 신학(신앙의 깊이 과정)의 대상은 죄인이며, 동시에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 
• 초대교부 St. Augustin “나는 하나님과 영(spirit, 인간의 본성)을 알기를 갈망한다. 더 알기 바라는 것이 있는가?  
    아무것도 없다”
2.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관계성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심  
 $\Rightarrow$  성령님의 역사, 신앙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(삼위일체), 예수님의 두 본성(신성/인성), 성만찬의 신비 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음. ( $\rightarrow$  참다운 이해의 안내자로써의 성령님)
3. 성령을 설명할 때, 신론(하나님에 관한 지식, 삼위일체)과 은총론(구원론)과 연결하여 설명함  
 $\Rightarrow$  성령님을 신적인 사랑(caritas)과 동일시하여 설명함  $\Leftrightarrow$ 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심(=구원)  
    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고,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(구원)을 받는다.
4. 루터는 성령을 두 가지로 이해한다 :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써의 제3위,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써의 성령  
 $\Rightarrow$  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써의 성령은 죄인을 정죄한다. 그는 율법을 강조하고, 어긴 자를 죽음으로 위협한다.  
    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써 역사되어( $\rightarrow$  성령님의 본성)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다( $\rightarrow$  사랑, 구원)  
    : 완전한 인격성  
② 하나님은 성령을 신자에게 주신다.  $\Rightarrow$  성령의 은사( $\rightarrow$ 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)  
    :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, 신앙으로 우리를 지켜주심
5. 성령의 역사의 두 가지 방식 : 보편성과 특수성  
 $\Rightarrow$  ① 성령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신다.  $\rightarrow$  일반은총  
② 성령 하나님은 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다.  $\rightarrow$ 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  
cf. 루터는 중세교회의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(fides formata caritate)를 비판하고,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한다. ( $\rightarrow$  fides formata Caritate Dei)  
<성령의 열매> 아이를 낳고, 부인을 사랑하고, 정부에 복종하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이다. (1531년 갈라디아서 강의)
6.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.  
<대교리문답> 성령에 대한 복음 설교가 우리 마음에 먼저 부여되고,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신도 나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떤 것도 알 수 없으며, 그를 믿음을 수 없고, 영접할 수도 없다”  
<소교리문답 제3번> 성령은 나를 복음을 통해 부르시고, 그의 은사로 밝히시며, 온전한 신앙으로 구원하셨고,  
    지켜주셨다”
7. 성령은 항상 말씀과 성례전의 도구로 사용된다. 은혜의 방식(means)을 통해 오신다. ( $\rightarrow$  외적수단을 통해 임재)  
 $\Rightarrow$  (성령을 받기 원한다면)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, 읽음, 지킴을 통해, 성례전을 믿음으로 참여함을 통해 기대하라.
8. 성령의 역사는 숨은 하나님(Deus Absconditus)의 모습으로 임하신다. ( $\rightarrow$  내적인 역사)
9. 성령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임하신다.  
루터는 “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확고한 것, 즉 하나님의 말씀, 주기도문 등등”을 믿도록 지시하고 있다.  
    때때로 그는 성령이 자신의 기도 안에서 “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심”을 쓰고 있다.